i-KIET 산업경제이슈

제231호 2026-31

발행일 2026년 10월 22일 | **발행인** 권남훈 | **편집인** 이두희 | **발행처** 산업연구원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이 홍 부연구위원

-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세 구간 모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통유-고급유 가격차의 변화는 1차(3.13~3.26) -45.75원, 2~6차(3.27~6.26) -165.51원, 7차 이후(6.27~9.16) -239.48원/리터로 추정되었음.
  - 1,094개·637개 균형표본과 정책 이전에 선정한 1,785개 명단에서도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분석 시작연도를 달리해도 상대가격 하락 방향이 유지되었음.
  - 이는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 **최고가격제는 급격한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및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 소매가격 전가를 종합하여 설계해야 함.
  -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하여 조정·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소 시 취약가계·필수 운송 분야의 선별 지원과 가격정보 제공·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후속 평가는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실제 손실보전액·관리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순 편익과 전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핵심 주제어: 석유 최고가격제, 주유소 판매가격, 이중차분, 가격 전가, 로켓과 깃털, 출구전략

최고가격제의 도입 경과와 본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였으며, 자원 수급 위기 국면의 가격 변동성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제시하였음.[1]
  -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적용하였음. 최초 보통휘발유 상한은 1,724원/리터로, 정부가 제시한 3월 11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 1,833원보다 109원 낮았음.
  - 최초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등유이며 이후 2차부터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음. 국제가격 급등의 출퇴근·운송·생산비용 전이를 완충할 수 있으나, 장기화 시 비용 보전·공급 유인·재정 부담과 가격 신호 약화가 함께 쟁점이 됨.
-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 이후 상한의 인상·동결·인하와 적용기간 연장을 거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하며 운용되었음.
  -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최초 1,724원/리터에서 3월 27일 1,934원으로 210원 인상된 뒤 6차까지 유지되었으며, 6월 27일에는 1,784원으로 150원 인하되어 10차까지 동결되었음.

〈표 1〉 2026년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변동 타임라인

차수	적용기간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비고
1차	3.13~3.26	**1,724**	1,713	1,320	최초 시행
2차	3.27~4.9	**1,934**	1,923	1,530	상한 210원 인상
3차	4.10~4.23	**1,934**	1,923	1,530	가격 동결
4차	4.24~5.7	**1,934**	1,923	1,530	가격 동결
5차	5.8~5.21	**1,934**	1,923	1,530	가격 동결
6차	5.22~6.26	**1,934**	1,923	1,530	가격 동결·적용기간 연장
7차	6.27~7.24	**1,784**	1,773	1,380	상한 150원 인하
8차	7.25~8.21	**1,784**	1,773	1,380	가격 동결
9차	8.22~9.18	**1,784**	1,773	1,380	가격 동결
10차	9.19~10.16	**1,784**	1,773	1,380	가격 동결

자료: 정책 타임라인 및 산업통상부 공식 발표.[2]
주: 가격의 단위는 원/리터이며,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임.

- 최고가격제가 반복적으로 조정·연장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 경감 성과와 제도 유지 비용을 함께 확인하여 향후 운용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가격규제가 지속될수록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점검해야 함. 따라서 제도의 지속 운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필요함.
  - 특히,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지 못하면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규제 지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소비자에게 전달된 가격안정 편익을 정량적·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제도의 유지·조정·종료를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임.
- 결국 석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정유사 공급가격의 억제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의 인하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함.[3]
  -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재고의 매입단가, 유통비용, 판매 경쟁과 마진 조정에 따라 소매가격에 반영되는 크기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공급가격 상한의 조정폭만으로 소비자가 얻은 혜택을 판단하기 어려움.
-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정책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반사실적 가격과 비교하는 실증분석이 필요함.

---

1 산업통상부(2026. 3. 12), "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 보도참고자료, p. 1.
2 산업통상부·정책브리핑(2026. 3. 27),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산업통상부(2026. 5. 21), "정부, 물가와 민생 안정 위해 6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산업통상부(2026. 6. 26), "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산업통상부(2026. 9. 18), "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부터 민생경제 보호".
3 국회입법조사처(2026), 「석유최고가격제, 실효성 있나?」, pp. 261-264.

- 정책 시행 이후의 판매가격에는 국제 석유제품가격·환율·유류세 등 다른 요인의 변화도 함께 반영되므로, 단순한 시행 전후 비교로는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움.
- 정책 이후 가격이 상승하였더라도 정책이 없었다면 더 크게 상승했을 수 있으며, 가격이 하락하였더라도 국제가격 하락의 영향일 수 있음. 정책의 가격안정 성과를 판단하려면 이러한 변화와 구분되는 비교기준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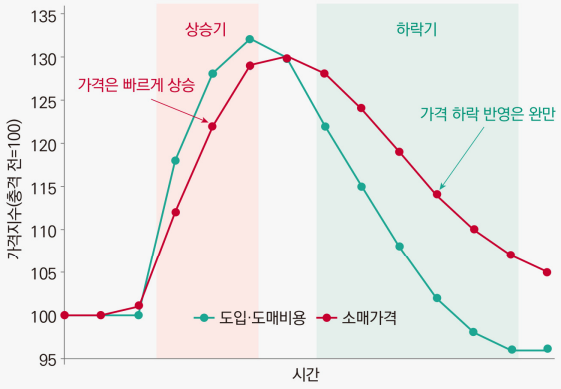
- **본고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일별 주유소별 가격자료 전수를 활용하여, 동일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를 비교하는 이중차분(DID) 분석을 수행하였음.**
  - 고급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고가격제의 직접 적용에서는 제외된다는 제도적 차이를 활용하였음. 같은 주유소 안에서 두 유종을 비교함으로써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하였음.
  - 보통휘발유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공급가격 상한이 같은 1차(3.13~3.26), 2~6차(3.27~6.26), 7차 이후(6.27~9.16)의 세 구간으로 나누어 상대가격 변화를 추정하였음.
  - 주 분석은 2025년부터의 가격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과 분석 시작연도를 달리하여 결과의 민감도를 점검하였음.
  - 고급유로의 정책 파급과 유종별 가격추세 차이 등 효과 해석에 필요한 가정을 함께 검토하여, 관측된 상대가격 변화와 보통유 자체의 정책효과를 구분하고자 하였음.
- **본고의 분석은 공급단계의 가격 규제를 최종 소비자의 구매가격과 연결하여 평가하고, 향후 소비자 편익과 재정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기초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가격효과 추정에 판매량을 결합하여 소비자 유류비 절감액을 산출하고, 이를 같은 기간의 정부 손실보전 비용과 비교하면 정책의 비용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 이러한 평가는 가격안정 편익과 규제 유지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의 유지·조정·종료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유가 가격관리 정책의 작동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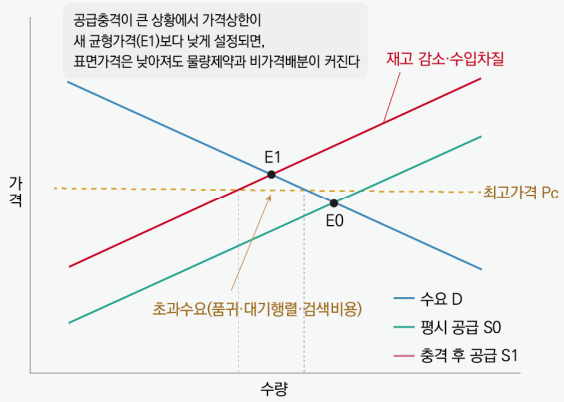
- **원가가 상승할 때 판매가격은 빠르게 오르지만 원가 하락은 더 천천히 반영되는 가격 조정의 비대칭성은 '로켓과 깃털(Rockets and Feathers)'로 알려져 있음.**
  - Borenstein·Cameron·Gilbert(1997)는 미국 휘발유 시장에서 원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조정의 비대칭성을 분석하였음.[4] 탐색비용·경쟁·마진 회복과 재고 등 여러 경로가 이러한 조정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Lewis(2011)는 소비자의 탐색 행동과 가격 조정의 관계를 다루었음.[5]

〈그림 1〉 유가 가격관리 정책의 작동 원리

(a) 가격 조정의 비대칭성(Rockets and Feathers)



(b) 가격상한제 도입 시 시장균형 변화



주: (a) Borenstein et al.(1997), Lewis(2011) 등의 논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b) 표준 미시경제학의 가격상한 모형을 본 사안에 맞게 도식화.

4 Borenstein, S., A. C. Cameron, and R. Gilbert(1997), "Do Gasoline Prices Respond Asymmetrically to Crude Oil Price Chang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1), pp. 305-339.

5 Lewis, M. S.(2011), "Asymmetric Price Adjustment and Consumer Search: An Examination of the Retail Gasoline Market",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rategy*, 20(2), pp. 409-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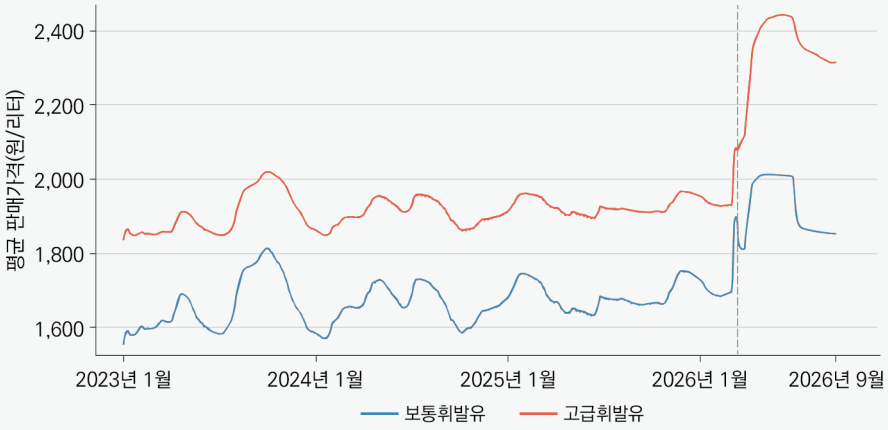
- 소비자가 최근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락기에는 현재 가격을 충분히 저렴하다고 여겨 추가 탐색을 줄일 수 있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약해지면 매입비용 감소의 일부가 마진에 남아 하락 전가가 지연될 수 있음. 상승기에는 반대로 탐색과 마진 압박이 커질 수 있음.

- **최고가격제가 하락기 매입비용의 조정이나 경쟁적 가격 인하를 앞당긴다면, 정책이 없었을 때보다 보통유 가격이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경로를 예상할 수 있음.**
  - 직접 규제에서 제외된 고급유의 가격이 기존 조정 속도를 유지하고 보통유가 더 빠르게 낮아진다면 고급유 대비 보통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이는 관측된 상대가격 하락을 이해하는 하나의 경제적 가설이며, 이후의 일별·월별 그림에서 그 모습과 시점을 살펴봄.

정책효과 분석의 비교기준: 보통휘발유·고급휘발유의 장기 가격추이

- **정책이 없었을 경우의 보통휘발유 가격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비교기준으로 고급휘발유를 활용하고, 두 유종의 장기 가격추이를 살펴보았음.**

〈그림 2〉 보통휘발유·고급휘발유의 일별 판매가격: 전체 관측 가격쌍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저자 계산.
주: 매일 보통휘발유·고급휘발유의 양수 가격이 있는 전체 주유소의 단순평균으로, 날짜별 표본 구성이 달라짐. 정책 시행일(2026.3.13)은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 **정책 이전 두 유종의 가격은 여러 상승·하락 국면에서 대체로 함께 움직였으며, 이는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는 고급유를 비교유종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근거를 제공함.**
  - 원유·국제 제품가격·환율과 유통 여건이 두 유종의 비용에 함께 영향을 미치므로 공통적인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음. 장기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짧은 정책 직전 구간만 보고 비교집단을 선택했다는 우려를 줄이고, 과거의 변동 폭과 사후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기 위함.

- **두 선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사실과 정책이 없을 때의 가격차가 안정적이라는 가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가격 수준의 공통 변동이 크면 두 선이 평행해 보이더라도 수십 원 규모의 가격차 변동이 가려질 수 있음. 더욱이 이 그림은 일별 관측 주유소의 구성이 달라지므로 시각적인 평행추세 판단만으로 인과해석을 확정하지 않고, 고정 명단 및 고정효과 가격차 분석으로 확인하였음.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추정: 이중차분 모형과 사전추세 가정

- **데이터의 주 표본은 2026.1.1~9.16의 259일 모두 보통유·고급유 가격이 양수인 1,512개 주유소로 확정하였음.**
  - 2026년에 한 번 이상 관측된 주유소 1만 589개 중 매일 관측되는 주유소는 8,993개였음. 관측과 판매를 구분하여, 매일 관측되고 고급유 판매 이력만 있는 1,798개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매일 양수 가격쌍이 있는 집합을 사용하였음.

- 기본 모형은 같은 주유소의 두 유종을 비교하되, 다음과 같이 주유소×유종 고정효과와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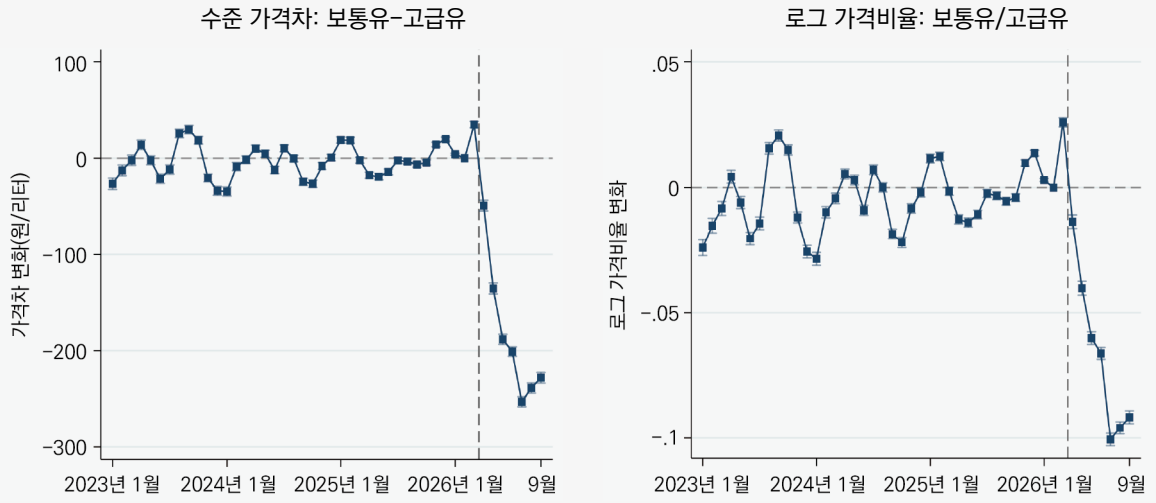
$$p_{sft} = \alpha_{sf} + \lambda_{st} + \sum^{3}_{k=1} \beta_k \left[R_f D_{kt} \right] + \varepsilon_{sft}$$

$$gap_{st} = a_s + \sum^{3}_{k=1} \beta_k D_{kt} + u_{st}$$

주: s는 주유소, f는 유종, t는 날짜. R은 보통유 지시자이며 D_k는 세 정책구간 지시자. 수준 가격차 gap은 보통유−고급유. 각 구간의 기준은 분석 시작일~2026.3.12 전체 사전기간.

- 주유소×유종 고정효과는 입지·브랜드·상시적인 유종별 마진 등 변하지 않는 차이를 흡수하며,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는 두 유종에 공통으로 더해지는 일별 충격을 흡수함.
  - 두 유종의 가격을 차분하면 주유소×날짜 효과가 제거되어 가격차를 주유소 고정효과와 세 구간 지시자에 회귀하는 식과 계수가 같아짐. 본 모델은 같은 주유소의 두 유종을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충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중차분법(DID) 계수가 보통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로 해석되려면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어야 함. 고급유가 직접 규제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대체수요나 매입가격·마진 조정을 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DID는 두 유종의 정책효과 차이를 반영함.
  - 둘째, 주 결과인 수준 모형에서는 정책이 없었다면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아 기존 가격차가 체계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이 필요함.
-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종료일까지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637개 주유소의 장기 가격변화를 이용하면 날짜별 표본 구성 변화 없이 약 3년 8개월의 상대가격 움직임을 볼 수 있음.

〈그림 3〉 637개 장기 균형표본의 월별 수준·로그 계수



자료: 저자 추정.
주: 2023.1.1~2026.9.16의 동일 637개 주유소. 2026.2=0이며 3월은 정책 전후 분리. 주유소 군집 95% 신뢰구간. 9월은 16일까지의 관측.

- 이 그림의 강점은 장기 사전기간에 두 유종의 상대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등락하였으나, 정책 이후 두 유종의 가격 움직임이 달라졌음을 보여줌.
  - 장기 사전기간에 동일 주유소의 두 유종 간 상대가격이 일정 범위에서 등락한 모습은 고급유를 보통유의 비교기준으로 설정하는 데 경제적 근거를 제공함.
  - 637개 명단을 그대로 두고 회귀 시작연도만 바꾸면 기간의 영향과 명단의 영향을 구분할 수 있음. 세 구간 추정결과 표에서 이 비교를 함께 제시하였음.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추정: 모형 추정 결과

- 앞서 제시한 가정 아래, 보통휘발유의 가격안정 효과는 1차 45.75원, 2~6차 165.51원, 7차 이후 239.48원/리터로 추정되었음.
  - 이는 정책 시행 이후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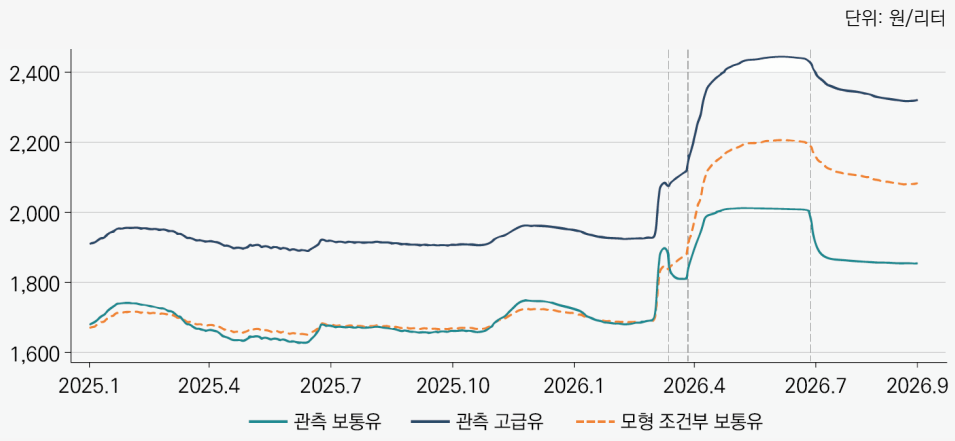
〈표 2〉 고정 표본·분석 시작연도별 세 구간 가격변화 추정 결과

표본/분석 시작연도	1차(3.13~3.26)	2~6차(3.27~6.26)	7차 이후(6.27~9.16)
1,512개 주 표본/2025년 시작	−45.75 [−49.42, −42.08]	−165.51 [−168.36, −162.65]	−239.48 [−242.43, −236.53]
1,094개 균형/2025년 시작	−45.14 [−49.47, −40.80]	−164.93 [−168.23, −161.63]	−241.77 [−245.25, −238.29]
637개 균형/2025년 시작	−44.75 [−50.43, −39.07]	−168.17 [−172.79, −163.55]	−242.57 [−247.29, −237.84]
1,785개 사전 표본/2025년 시작	−44.43 [−47.91, −40.96]	−165.53 [−168.27, −162.80]	−238.80 [−241.68, −235.92]
637개 균형/2023년 시작	−40.47 [−46.32, −34.61]	−163.88 [−168.32, −159.44]	−238.28 [−242.95, −233.61]
637개 균형/2024년 시작	−40.71 [−46.52, −34.91]	−164.13 [−168.63, −159.63]	−238.53 [−243.13, −233.93]
1,785개 사전 표본/2024년 시작	−41.31 [−44.84, −37.77]	−162.40 [−165.08, −159.73]	−235.68 [−238.49, −232.88]
1,785개 사전 표본/2023년 시작	−40.86 [−44.42, −37.30]	−161.95 [−164.61, −159.29]	−235.24 [−238.07, −232.41]
1,512개 주 표본/2024년 시작	−42.76 [−46.50, −39.03]	−162.52 [−165.34, −159.70]	−236.49 [−239.41, −233.58]
1,512개 주 표본/2023년 시작	−42.50 [−46.27, −38.73]	−162.25 [−165.07, −159.44]	−236.23 [−239.18, −233.27]

자료: 저자 추정.
주: 기준 1,512개 = 2026.1.1~9.16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주유소. 사전 1,785개 = 정책 이전인 2026.1.1~2.28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주유소. 균형 1,094개 = 2025.1.1~2026.9.16 전체 기간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주유소. 균형 637개 = 2023.1.1~2026.9.16 전체 기간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주유소. 계수는 보통유−고급유 가격차의 변화, 원/리터. 대괄호는 주유소 군집 95% 신뢰구간. 각 시작연도 1.1~2026.3.12가 공통 기준.

- 주유소 표본과 분석기간을 달리해도 상대가격 하락 방향과 추정 규모는 대체로 유지되었음.
  - 분석 연도를 2025년으로 통일하면 네 표본 간 추정치의 최대 차이는 구간별로 1.32원, 3.24원, 3.77원에 그쳤음.
  - 동일한 표본에서 분석 시작연도를 2023년이나 2024년으로 바꾸어도 세 구간 모두 상대가격이 낮아지는 결과가 유지되었음.
- '정책이 없었더라면 보통유가 어떤 흐름을 보였을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고급유를 이용한 조건부 가격 경로를 구성하였음.

〈그림 4〉 DID 모형으로 재구성한 보통유의 조건부 경로



자료: 저자 추정.
주: 관측 보통유·관측 고급유·모형의 조건부 보통유 경로를 함께 표시. 조건부 경로는 고급유 관측가격+전체 2025년 시작 회귀에서 추정한 주유소별 절편(상수 포함). 세 정책구간 효과를 0으로 설정하며 정책 후 정보도 사용함.

〈표 3〉 관측가격과 조건부 경로의 구간 평균

단위: 원/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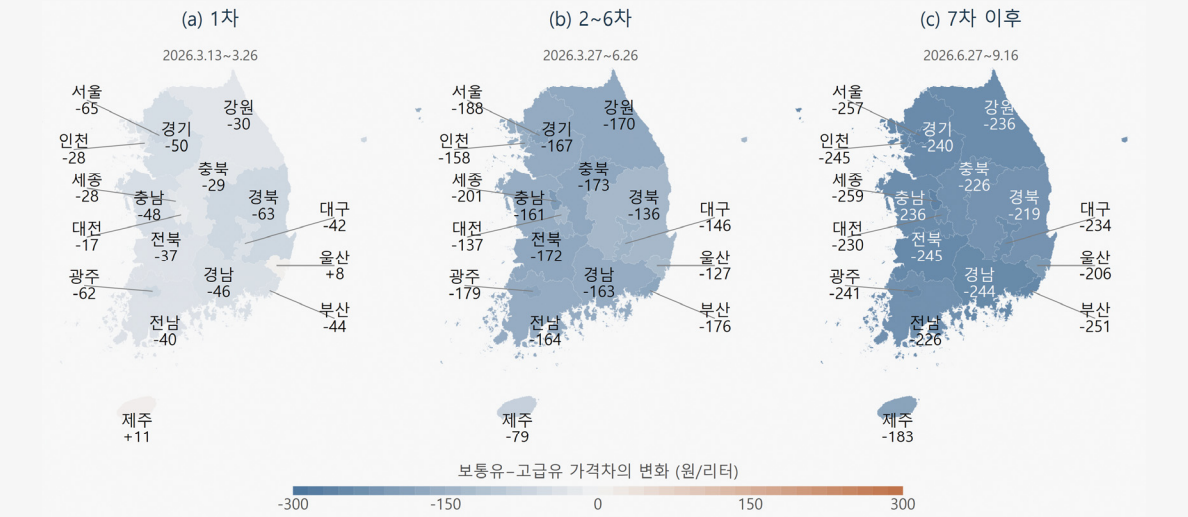
	1차	2~6차	7차 이후
관측 보통유 가격	1,817.35	1,993.99	1,867.95
관측 고급유 가격	2,100.74	2,397.13	2,345.07
조건부 보통유 가격	1,863.10	2,159.50	2,107.43
관측-조건부 가격	-45.75	-165.51	-239.48

주: 같은 회귀 관측·가중치로 집계하여 사후 구간 평균 차이가 〈표 2〉의 주 표본 계수와 일치함을 검증. 차이는 반올림 전 수치로 계산. 단순히 정책 전 평균 가격차를 더하는 방식과 구분함.

지역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의 변화

- 2~6차와 7차 이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휘발유의 고급휘발유 대비 상대가격이 낮아졌으나, 하락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음.
  - 점추정치를 기준으로 2~6차와 7차 이후 하락폭은 세종에서 각각 201.26원과 259.04원/리터로 가장 컸으며, 제주에서는 78.87원과 183.36원/리터로 가장 작았음.
  - 1차에는 서울의 64.84원 하락부터 제주의 11.05원 상승까지 차이가 있었음. 울산·제주의 점추정치는 양수였으나 두 지역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였음.

〈그림 5〉 시도별 세 정책구간 DID: 보통유-고급유 가격변화



주: 2025.1.1~2026.9.16, 유종가격차 회귀의 주유소 고정효과·주유소 군집 추론. 각 구간은 2025.1.1~2026.3.12 전체 사전기간 대비 변화, 원/리터. 세 패널에 같은 기준 색상 척도 적용. 음수는 보통유 상대가격 하락을 의미함.

- 지역 간 추정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으나, 지역별 정책효과의 순위를 확정하는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함.
  - 지역 간 추정치가 같다는 가설은 각 구간과 세 구간 전체에서 기각되었음($p<0.001$).
  - 다만 지역별 평행추세가 별도로 확보된 것은 아니며, 제주 4개·세종 10개의 소수 표본과 다중 비교 등을 고려하여 탐색적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향후 정책 운용 방향

- 석유 최고가격제는 보통휘발유의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정책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1차 45.75원, 2~6차 165.51원, 7차 이후 239.48원/리터 낮아졌으며, 표본과 분석기간을 달리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

- **최고가격제는 외부 충격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담을 신속하게 완충할 수 있으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장의 조정 유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전 부담, 공급 유인과 에너지 절약 유인의 약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의 형평성도 평가해야 함.
- **출구전략은 상한의 지속 여부를 가격 수준 하나로 결정하기보다, 규제의 추가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4월 10일 개정 고시 부칙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성과 국내 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고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향후 정책은 종료 원칙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원칙을 공개된 지표와 예측 가능한 검토 절차로 구체화하는 데 있음.
  - 규제가 없는 경우의 공급가격이 상한 아래로 내려온다면 상한의 직접 구속력은 약해질 수 있음. 반면 국제가격이 다시 급등하거나 시장의 하락 전가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날짜 기준 종료가 가격 반등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음.
  - 우선 가격·공급·재정 정보를 함께 공개하고, 전환 판단에 사용하는 기준과 검토 절차를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음.

〈표 4〉 정책 전환 판단을 위한 핵심 지표와 정책적 의미

영역	확인할 지표	정상화 판단에서의 의미
외부 비용	국제 제품가격·원/달러 환율 조달·운송 여건	일시적 하락인지 지속적인 원가 안정인지 구분
상한 구속력	규제 부재 공급가격 추정치와 상한 간 격차	추가 가격안정 편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점검
소매 전가	공급가 대비 소매가격·마진 재고 회전·지역별 분포	보전·비용 인하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확인
공급·재고	유종별 공급·수입·재고 품절·비가격 제한	가격안정과 물량 안정의 동시 달성 여부 확인
재정·분배	보전액·누적부담·관리비용 계층·업종별 수혜	광범위 규제를 유지할 가치와 대안 지원 비교

-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규제의 조정·종료를 검토하되, 재고 회전과 소매가격 조정 시차를 고려하여 전환 경로를 예고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해제에 따른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야 하며, 상한의 구속력이 이미 낮아진 경우까지 단계적 해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음. 유류세 조정과 지원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간 시점 조율도 필요함.
- **규제 축소 과정에서는 취약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고, 가격정보 제공과 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비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전달되도록 가격 비교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 단계의 경쟁을 점검하여,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 **후속 평가는 가격변화에 판매량·공급·재정 자료를 결합하여 정책의 순 편익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실제 매입가격과 재고를 통해 전가 경로를 확인하고,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지출 절감액과 실제 손실보전액·관리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제도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모니터링과 보전액 정산·검증을 지속하고, 충격 재발 시 재검토할 조건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저자
이 홍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부연구위원 | honglee@kiet.re.kr | 044-287-3171

KIET 산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 FAX 044-287-3333 | 홈페이지 www.kiet.re.kr

이 글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